

경제민주화 해법, 불교 안에 있다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서 '경제문제 불교적 조명' 눈길

개인의 이윤추구를 기본 전제로 시작하는 자본주의에서의 경제행위를 '무소유'를 표방하는 불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빈부격차가 심해진 현대사회, '경제민주화'가 사회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불교 안의 경제사상으로 자본주의 대안을 모색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경제문제의 불교적 조명과 재해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시장자본주의서 연기자본주의로 전환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연기자본주의와 시장자본주의' 발표에서 불교 성립과정에서 중소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은 과정을 들려 불교 안의 자본주의 요소와 자본주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윤 교수는 경제학에서 시카고 학파가 주장한 자율적인 시장주의 체제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현대 여러 경제문제들은 개인, 또는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자본주의의 흐름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 대안으로 불교사상을 도입한 연기자본주의를 들었다.

윤 교수는 "불교는 성립당시 신흥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자유경제활동 보장과 함께 승자독식과 불공정경쟁 방지, 분배와 환경보호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장조성 등은 현대의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11월 17일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을 비롯한 150여명이 모여 경제활동에 대한 불교적 해석에 관심을 보였다.



윤성식 교수



이도흠 교수



박경준 교수

윤 교수가 주장한 연기자본주의는 △연기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자리아타와 자비의 경제윤리를 지니며 △'정념'과 '정경'에 기반한 경제의사결정을 통해 △중도와 절제의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윤실현이 아닌 가치관 실현의 개인 경제활동 △소비자를 위한 기업활동을 추구한다.

윤 교수는 "최근 제시되고 있는 창조자본주의, 자본주의 4.0 등의 대안들은 연기자본주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정부 경제정책에 이런 사상을 반영해 건강한 시장형성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무소유' 아닌 '무집착'이 중요

먼저 이날 '불교의 경제관'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불교학연구회장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불교는 무소유라는 관점보다는 무집착(無執着) 욕망의 제어 쪽에 더 중점을 둔다"고 정의했다.

박경준 교수는 "불교는 경제적 생산활동을 인정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제고, 이윤

추구를 장려한다"며 "불교가 무조건 개발과 성장을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준 교수는 초기 불교교단의 출제가 이원구조가 이런 생산과 분배활동의 대표적인 분업구조라고 설명했다. 생산 및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재가자와 분배와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출가자의 건전한 관계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발달이 가능하다는 것. 박 교수는 "불교의 경제활동은 이기심을 해탈과 열반으로 승화시켜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해가는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회행으로 자본주의의 아픔 치유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회행 경제학' 발표를 통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불교사상이 기여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연승과 HP 등 해외의 비즈니스 협력 사례를 협력을 통한 상생의 경영 사례로 들려 경쟁을 통한 제로섬 시장이 아닌 협력과 경쟁 확대, 공동체 발전을 통한 발전의 시장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극복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중은 나만의 변화 뿐만 아닌 다른 이들의 불성과 같은 공동의 목소리를 실현해 새로운 사회문화 형성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창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사찰 및 제(財)공양 법(法)보시의 경영학적 분석',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원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추사, 조선후기 간화선 지상주의 비판

동국대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 성본 스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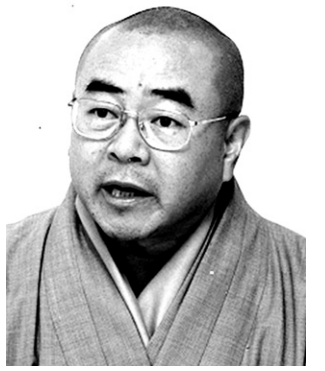
동국대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 성본 스님(사진)은 11월 23일 과천 경기소리전수관에서 추사학회가 개최한 2012 추사학술대회에서 추사 김정희가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당대 불교계의 간화선 지상주의의 병폐를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초의 의순 스님(1786~1866)과 30살 때 다산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의 소개로 만나 평생 도반으로 살았다. 추사의 <완당전집>에는 당대 선승들과 교유를 나눈 서신이 전해진다.

성본 스님은 '추사 김정희와 초의 선사의 교유' 발표에서 "추사는 경전 공부하는 하지 않고 간화선을 맹종적으로 추종하는 당시 선문의 병폐를 비판했다"며 "특히 추사는 간화선의 병폐를 조장한 주인공이 대해종교라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성본 스님은 "추사의 이런 비판은 유마거사가 부처님의 십대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추사의 재가거사로서 안목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본 스님은 "재가자로 추사와 출가자로서 초의의 인연은 선법과 다도의 불



이경지로 승화된다"며 "추사가 선승들과 나눈 아름다운 교유와 안목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차차서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도 "추사는 <안반수의경>, <능엄경>, <유마경>, <금강경>, <사십이장경> 등 많은 선어와 선문답을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추사의 불교사상을 알 수 있는 단초"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19세기 유교독존주의가 붕괴되며 거사불교로 평가되는 일군의 재가선자들이 등장한다. 그들과의 상관성 속에 추사는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한국불교사연구소 제3차 집중세미나

원효 스님에 관한 연구 쟁점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12월 1일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제3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분향원효 연구의 몇가지 과제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영섭 소장이 '원효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를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원효의 교제론과 언어관'을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가 '원효 일시의 정의와 의미'를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원효의 화쟁 논법은

견해의 배타적 주장을 치유할 수 있는가'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류승주 연세대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 권오민 경성대 교수,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김영일 동국대 BK21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

고영섭 소장은 "원효 연구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아직 정해지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며 "집중세미나를 지속 개최해 연구 과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보> 제63집 원고 모집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12월 31일 발간되는 <불교학보> 제63집의 원고를 모집한다. 1963년 창간된 <불교학보>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매년 3회 발간하고 있다. 제63집은 불교학 전반에 관한 자유주제로 논문 마감은 11월 22일까지다.

논문집 수록논문은 △한글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내외로 한글요약은 500자 내외, 영문요약은 A4용지 1매 이내다. 한글 및 영문 주제어는 각 5개 내외로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을 수록해야 한다.

02)6713-5140 노덕현 기자

명상발전 보며 간화선 미래모델 찾는다

성철탄신100주년세미나, 인도부터 현대 수행법 고찰

"수백만권의 금강산 여행안내서를 읽는 것보다 직접 금강산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듯이 경전과 논서를 읽고 공부하기보다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참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중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참선과 명상의 불교사적 흐름을 짚고 한국불교의 수행법이 나아가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1월 29~30일 양일간 동국대 덕암세미나홀에서 '불교의 명상-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를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남방불교의

전통수행법으로 알려진 위빠사나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첫날인 11월 29일에는 피터 스킬링(Peter Skilling) 박사(프랑스 극동학원)의 '불교의 명상 누가 독점하려 하는가?'와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 교수(미국 UCLA)의 '한국불교 명상수행' 기조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피터 스킬링 박사는 남방 <정정도론>보다 대승 <유가사지론>에 수식관이 상세히 설명된 점을 들려 위빠사나가 남방불교의 명상수행, 또는 불교 전체 명상수행으로 평가되는 세간 인식에 비판을 가한다.

이어 제1부 '고대 인도' 제2부 '동남아시아' 제3부 '동아시아 및 티베트' 제4부

'한국' 등 세부 주제로 이어진다.

1부 '고대 인도'에서는 △요하네스 브롱코스트(Johannes Bronkhorst) 교수(스위스 로잔대학)의 '초기불교명상' △알렉스 위니(Alexander Wynne) 교수(미국 DKF 대학)의 '브라마 사상과 초기불교의 명상' △중앙승가대 교수 정덕 스님(역경학과)의 '디비아바다나에 나타난 인도불교의 명상' 3편이 발표된다.

제2부 '동남아시아'에서는 △케이트 크로스비(Kate Crosby) 교수(영국 런던대학)의 '동남아시아 불교와 명상' △아티드 셰라바니쿨(Arthid Scheravanichkul) 교수(태국 출라롱콘대학)의 '탁신왕은 미쳤는가 위대한 보살인가-탁신왕의 전설에 나타난 명상의 중요성'이 발표된다.

둘째날인 30일에는 제3부 '동아시아 및

티베트' 편에서 △제레온 코프(Gereon Kopf) 교수(미국 루터대학)의 '황소와 어떻게 해야 할까? 황소를 인도하는 수행에 관한 주석' △헤원 스님(동국대)의 '중국 불교의 명상수행' △아침 바이어(Achim Bayer) 교수(동국대)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티베트불교 명상전통에 나타난 돈오적 요소' 등 3편이 발표된다.

제4부 '한국'에서는 △찰스 뮐러(Charles Muller) 교수(일본 도쿄대학)의 '사건과 명상을 통한 사건의 중단-원각경(圓覺經)을 통해 본 돈오의 힘' △윤원철 교수(서울대 종교학과)의 '한국불교의 선문화' △서명원 교수(서강대 종교학과)의 '성철스님의 명상' 등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불교 명상의 기원부터 각국에서 현대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통해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말했다. 02)2198-5100 노덕현 기자

단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를 웅장하고, 맑은 소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 방법 : 앰프와 마이크 또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 좋지않은 장비를 고급 신형 제품으로 교체 해 장엄한 소리를 보시하겠습니다.

- 보완 보시기간 : 2012년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약 순으로 일주일에 2곳만 설치 해 드립니다)
- 해당지역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이외 지역은 출장비 일부가 추가됩니다)

파워덱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 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 로 개조 해 드립니다. (빠-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 마이크 V-620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경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 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능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